

김효주 3월의 여왕... 통산 8승

파운더스컵 1타 차로 정상
2015년 대회이후 두 번째
10개월 만에 우승컵 입맞춤
1~4라운드 내내 선두 지켜

LPGA 김효주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포티넷 파운더스컵(총 상금 300만 달러)에서 우승했다.

김효주는 2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의 사론하이츠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654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5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기록한 김효주는 2위 넬리 코르다(미국)를 1타 차로 제치고 지난해 3월 포드 챔피언십 이후 1년 만에 투어 8승째를 달성했다.

2015년 이후 11년 만에 이 대회 패권을 탈환한 김효주는 우승 상금 45만 달러(약 6억7000만 원)를 받았다.

이번 대회 1~4라운드 내내 1위를 놓치지 않고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거둔 김효주는 다음 주 포드 챔피언십에서 타이틀 방어에 도전한다.

김효주는 3라운드까지 2위 코르다에게 5타나 앞서 있었다.

그러나 전반 9개 홀에서 버디와 보기를 2개씩 맞바꾸며 타수를 줄이지 못했고, 이 사이 2인 1조로 동반 플레이를 한 코르다가 전반에만 4타를 줄이며 매섭게 따라붙었다.

결국 10번 홀(파5)에서 코르다가 버디를 잡아내며 공동 선두에 올라 우승 향방은 안개 속으로 빠졌다.

김효주와 코르다의 매치 플레이 양상으로 흐른 후반에서 김효주는 곧바로 11번 홀(파4) 버디로 다시 1타 차 단독 1위를 되찾았고, 14번 홀(파4)에서 4m 정도 버디 퍼트를 넣고 2타 차를 만들었다.

김효주는 13번 홀(파3) 그린 주위에서 시도한 칩샷이 깃대를 맞았으나 멀리 튀지 않아 파를 지켰고 1타 차 선두였던 17번 홀(파3)에서도 러프에서 친 두 번째 샷을 홀 가까이 붙이면서 파 세이브에 성공했다.



LPGA 투어 김효주 통산 8승 기록

| | |
|--------------|--------------------|
| 2014년 9월 | 에비앙 챔피언십 |
| 2015년 3월 | JTBC 파운더스컵 |
| 2016년 1월 | 퓨어실크 바하마 LPGA 클래식 |
| 2021년 5월 | HSBC 우먼스 월드 챔피언십 |
| 2022년 4월 | 롯데 챔피언십 |
| 2023년 10월 | 어센던트 LPGA 베니피팅 VOA |
| 2025년 3월 | 포드 챔피언십 |
| 2026년 3월 23일 | 포티넷 파운더스컵 |

김효주 선수가 2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LPGA 투어 포티넷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한 후 트로피 옆에서 골프공을 들어 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코르다의 17번 홀 짧은 파 퍼트가 어이 없이 빗나가며 김효주는 다시 2타 차 리드를 안고 마지막 18번 홀(파5)로 향할 수 있었다.

김효주는 18번 홀에서 병커에 두 번이나 공을 보내며 고전했으나 보기로 막아 1타 차 우승을 확정했다.

2014년 LPGA 투어 비회원 자격으로 나선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첫 승을 따낸 김효주는 신인 시절인 2015년 이 대회에서 회원 자격으로 LPGA 투어 첫 우승을 달

성했다. 11년 만에 이 대회 타이틀을 되찾은 김효주는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열린 레이디스 유러피언투어(LET) 아람코 챔피언십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또 8일 중국에서 열린 블루베이 LPGA 이미향에 이어 한국 선수가 2개 대회 연속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김효주는 경기 후 TV 중계 인터뷰를 통해 "공동 선두를 허용하면서 힘들 것 같다

는 생각도 했다"며 "그래도 마지막에 우승해서 기분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13번과 17번 홀 상황에 대해 "사실 파를 지키기 어려워 보였다"며 "(공이 깃대를 맞고 나간) 13번 홀은 운이 너무 좋았고, 17번 홀은 어프로치 샷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파 세이브가 가능했다"고 돌아봤다.

김세영과 임진희가 11언더파 277타, 공동 3위에 올랐고, 유혜란은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5위다.

글:사찬=연합뉴스

홍명보호, 월드컵 '최종 점검'

28일 코트디부아르 평가전
내달 1일 오스트리아와 일전

홍명보호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전 마지막 A매치를 치르기 위해 유럽 대륙으로 이동했다.

홍명보호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 본진은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 런던으로 떠났다.

수문장 조현우(울산), 송병근, 미드필더 김진규(이상 전북), 측면 수비수 김문환(대전) 등 국내파 선수들과 홍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 지원 스태프가 런던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대표팀 본진은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근교의 밀턴케인스로 이동한다. 손흥민(LAFC),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뮌헨), 이재성(마인츠), 오현규(베식타시) 등 해외파 주축 선수들은 현지에서 대표팀에 합류한다.

홍명보호는 28일 오후 11시(한국시간) 밀턴케인스의 스타디움 MK에서 코트디부아르를 상대한다.

이어 오스트리아 빈으로 건너가 4월 1일 오전 3시 45분 에른스트 하펠 경기장에서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두 번째 평

가전을 치른다. 북중미 월드컵 전 마지막 막으로 진행되는 A매치 구간이다.

홍 감독으로서의 사상 첫 원정 8강 도전에 나설 태극전사를 선발하기 전 선수들을 실전으로 점검할 마지막 기회다.

또 이번 두 경기를 통해 월드컵 본선에서 주전으로 활약할 진용의 상당 부분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장은 물론이고 훈련장에서도 태극전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홍 감독은 이번 선수 명단을 발표하면서 "아직 최종 명단은 당장 정해진 게 없다. 5월에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를 뽑아서 월드컵에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은 코트디부아르를 상대로 2010년 3월 3일 런던에서 역대 한 차례 맞붙어 2-0으로 승리했다. 오스트리아와는 이번이 처음으로 A매치를 갖는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한국은 22위, 코트디부아르는 37위, 오스트리아는 24위다.

코트디부아르와 오스트리아 모두 한국처럼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나라들이다. 한국은 유럽 플레이오프 패스D 승자, 개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A조로 묶였다.

WBC 한국전 호투 산체스 '6년 1612억' 필리스와 연장 계약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한국에 패배를 안긴 도미니카공화국의 선발투수 크리스토퍼 산체스(29살)가 소속팀과 대형 계약을 맺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23일(한국시간) 좌완 선발투수인 산체스와 1억7000만 달러(약 1612억 원)에 6년 연장 계약을 맺었다고 MLB닷컴이 전했다.

계약 기간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이며 2033년에는 구단이 3250만~4450만 달러에 계약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됐다. 2021년 필라델피아에서 데뷔한 산체스는 2024시즌 11승 9패, 평균자책점 3.32를 기록하며 선발투수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15승 5패, 평균자책점 2.50

를 찍으며 내셔널리그(NL) 사이영상 투표에서 2위에 올랐다.

앞서 산체스는 2024시즌 도중 2250만 달러에 4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구단은 기량이 급성장한 산체스를 장기간 보유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됐다.

in 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